

# '과학 · 농업인 정성' 믿고 우리농산물 애용해야

내 자식 형제 자매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위해 매진  
치나친 걱정이 더 걱정, 안심하고 우리농산물 애용해야

**최** 근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 농업인에게 바라는 가장 간절한 것은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농촌지도관계자는 물론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을 잘 방제하면서도 농약잔류 없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정보와 인식부족으로 농약잔류와 관련 없는 막연한 우려와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시골 마을 앞 냇가에 물고기가 다량서식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었고 시커먼 흙탕물이 고여 있는 것을 마치 농약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의학이 발

달하면서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견되고 있는 것마저도 농약을 살포하여 재배한 농산물섭취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시골냇가오염의 주범이 농약사용으로 인식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그보다 개념 없이 방류되는 생활폐수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야 가옥 신축시에는 필수적으로 정화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에 건축된 가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관행재배 농산물을 섭취하여 질병이 많아졌다면 과거 농약 없는 자연농업을 할 때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진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물론 농작물재배에 있어서 병



생산지에서의 농업인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전국 어디에서든 내자식 내형제자매가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불필요한 걱정이 더 걱정이다. 제발 외국농산물보다 우리농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했으면 한다.

해충 발생을 막으려면 우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온도·습도 관리와 햇빛 그리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적당한 비료주기가 우선이다. 그러나 그래도 병해충 및 잡초는 발생한다. 그때 농약을 뿌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지난해 8월말 현재 1천1백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맹독성농약은 이미 생산을 중단한지 오래다. 대부분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이다. 그럼에도 농약잔류관련 보도시는 항상 맹독성농약 검출이란다. 특히 최근의 농약은 환경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때 먹는 아스피린보다도 독성이 약하고 과음보다도 오히려 약한 농약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두고 싶다.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지 않다. 작목별 ha당 연간 평균사용량은 벼가 7.1kg으로 일본보다 3.8kg이 적고, 상추는 4.3kg으로 미국보다 6.4kg이 적다. 또한 농약을 작물에 뿌리면 강우와 햇빛에 의

해 광분해로 소실된다. 다만, 농작물이 비를 맞지 않고 자외선 투과량이 적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자란 것은 분해기간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농산물 안전성 신뢰, 안심소비를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이곳 논산은 전국 딸기 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과정에서 딸기가 꽃핀 후에는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재배딸기는 화분매개용 꿀벌과 응애 천적을 방사하여 재배하기 때문이다. 만일 독성이 강한 농약이 사용된다면 꿀벌과 천적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딸기가 병해충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득이 농약을 뿌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게 된다.

벼농사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임에 틀림없다. 재배과정에서 못자리 때 범씨소독과 1회내외의 농약을 뿌리



는 경우가 있고 잡초방지를 위해 1회 그리고 모넨 후 1~2회를 뿌리는데 지난해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모넨 후 생략한 논도 많이 있다. 특히 벼농사에서는 수확 전까지 뿌릴 수 있는 약은 멸구약으로 대개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로 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벼멸구류의 양이 극히 적어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농약뿌리는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나마 마지막 농약뿌린 후 수확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무농약재배 쌀만을 찾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우가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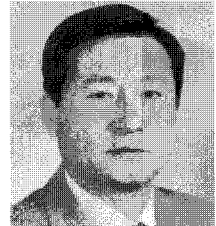
그 뿐이 아니다. 미꾸라지 또는 오리방사로 재배한 쌀은 일반적으로 식미가 저하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벼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중에 농약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물별로 적용약제 선택은 물론 농약의 뿌린 횟수와 수확전 최종 뿌리는 시기 그리고 물타는 배수를 제한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농산물 안전성평가다. 농산물중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이다. 이는 실험동물(rat, mouse 등)이 매일 섭취해도 해가 없는 약량을 구한 후 여기에 안전마진 100을 나누어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선정된 잔류허용기준 값의 100배에 해당되는 농도의 잔류농약

을 매일 섭취해도 일생동안 전혀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생산지에서의 농업인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전국 어디에서든 내자식 내형제자매가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자연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도 하개발아젠다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부심하고 있다. 불필요한 걱정이 더 걱정이다.

제발 외국농산물보다 우리농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했으면 한다. ♪



이 종 행  
농산농업기술센터 소독기술과장

